

“北 평창 참가, 성급한 기대 금물”

문재인 대통령, 대한노인회 오찬간담회서 “한반도 평화 위해 최선 다할 것” 강조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5일 북한이 평창동계올림픽 참가 의사를 밝힌 것과 관련해 “아직 성급한 판단이나 기대는 금물”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대한노인회 청와대 초청 오찬 간담회 모두 발언을 통해 이같이 밝힌 뒤 “그러나 가능하다면 남북관계 개선과 한반도 평화의 전기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평창올림픽을 평화의 올림픽, 나아가 북핵문제와 한반도 평화를 일구는 한 해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새해를 맞아 각 직능 단체들을 청와대로 초청해 인사를 나누는 자리를 마련하는 방안을 구상 중이다.

그 중에서 사회 어르신들을 대표할 수 있는 대한노인회 인사들을 초청해 고견을 듣는 자리를 마련했다는 게 청와대의 설명이다.

문 대통령은 “새해 맞아서 우리 어르신들께 새해 인사도 드리고 뵙고 싶어서 모셨다”며 “무술년 어르신들 모두 더욱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를 바란다”고 인사로 운을 폈다.

문 대통령은 “어르신들 지난 한해 여러모로 걱정이 많으셨을 것이다. 나라가 하루빨리 안정돼야 어르신들도 잘될 텐데 하셨을 것”이라며 “그러나 비바람 속에서 나무뿌리가 더 굳게 내리듯 나라가 굳건히 서는 과정이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5일 청와대 본관 추무실에서 열린 대한노인회 초청 신년 오찬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있다고 생각한다”고 지난 한 해를 돌이켰다.

그러면서 “우리 국민들은 세계에서 유례없이 평화롭게 위기를 극복했고, 전 세계가 경이롭게 대한민국을 바라보고 있다”며 “뿐만 아니라 어려움 속에서도 사상 최대의 수출 실적을 기록하면서 3%의 경제성장률을 회복했고, 1인당 국민소득도 3만 불에 근접한 성과를 거뒀다”고 소개했다.

이어 “저는 지식세대를 위해 위기를 몰아내면서 우리에게 바른 품성을 물려주신 어르신들 덕이라고 생각한다”며 “어르신들은 민국에서 아픔과 전쟁의 폐허를 딛고 대한민국을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으로 일으켜 세웠다”고 평가했다.

문 대통령은 “이제 민주주의에서도 세계의 모범이 되는 대한민국을 만들어가고 있다”며 “경제와 민주주의

양면으로 초석을 잘 다져주신 대한민국의 모든 어르신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어르신들 올해는 대한민국을 더 크게 발전시키고 국민들의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이 더 나아지도록 만들겠다”며 “또한 어르신들이 더 존경받고 대접받는 나라를 만들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뉴시스

“춘파용 맥류 보급종 신청하세요”

국립종자원 전북, 영양보리 30톤·조경밀 12톤 공급

국립종자원 전북지원은 2017년산 춘파용 맥류 보급종에 대해 오는 31일까지 거주지 가까운 시·군 농업기술센터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해 신청을 받는다고 지난 5일 밝혔다.

이번에 신청할 수 있는 종자는 맥류 춘파 재배용 2개 품종 42톤이며 품종별로는 영양보리 30톤, 조경밀 12톤이다.

공급가격은 20kg포대당 영양보리(미소독)는 2만4980원이고, 조경밀(소독)은 2만8600원이다.

신청된 종자는 2018년 2월 초부터 2월 중순까지 지역농협을 통하여 신청한 농업인에게 공급한다.

이번 춘파용 맥류 보급종 공급은 농

림축산식품부가 추진하고 있는 국내 조사료 수급안정 및 식량자급률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국립종자원 전북지원은 “가을 맥류 파종 시 이상기온 등으로 작기에 종자를 파종하지 못한 농업인의 경우 춘파용 맥류를 공급받아 파종할 것을 당부하는 한편, 이모작 재배를 통한 경지이용률 상승으로 농가소득 증대도 기대한다”고 밝혔다.

보급종 신청·공급 관련 문의 사항이나 품종별 특성 등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국립종자원 전북지원(☎ 063-530-3620) 또는 해당 지역 농업기술센터로 문의하면 안내를 받을 수 있다.

/김진성 기자

도보조기기센터, 장애인 70명에 보조기기 지원

전라북도가 지원하고 전주대학교가 위탁 운영하는 전라북도보조기기센터(이하 전북보조기기센터)는 2017년 민간지원사업을 통해 약 70여명의 장애인에게 보조기기를 지원했다고 지난 5일 밝혔다.

민간지원사업을 진행한 기관으로는 전북도청, 푸르메재단, 경기도재활공학서비스연구지원센터, 월드비전, 장애인개발원, 롯데재단, 분당서울대학교병원 등에서 진행했다.

이를 전북보조기기센터가 연계접수, 추천서 작성, 서류심사 등을 진행하여

지원을 완료했다.

회귀질환을 가진 장애인, 미취학 장애아동, 장애학생 등에게 이동보조기기, 학습용 보조기기, 의사소통보조기기 등의 보조기기를 지원했다.

전북보조기기센터 신현옥센터장(전주대학교 재활학과)은 “정부에서 제공하는 장애인 보조기기 지원사업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민간지원사업을 통해 보조기기가 지원되었으며, 2018년에 더욱 많은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진성 기자

전북도 기부문화 확산 따뜻한 겨울나기 온힘

이달 31일까지 ‘희망나눔캠페인’ 도민 관심·참여 당부

전북도는 지난해 11월 20일부터 2018년 1월 31일까지 73일간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주관으로 실시하는 ‘희망2018 나눔캠페인’에 도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

도는 관내 공공기관 및 단체, 기업체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함으로써 전도민이 참여할 수 있는 사회적분위기를 조성, 모금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도내 소속 및 산하기관에 협조를 요청했다.

“나눔으로 행복한 나라”를 슬로건으

로 하는 ‘희망2018나눔캠페인’ 성금 모금 지원활동을 통해 기부문화 확산을 촉진, 집중모금을 통한 사회복지 재원 확보 및 따뜻한 분위기를 조성할 계획이다.

전북공동모금회 관계자는 “올해는 어려운 경제상황 지속 등으로 기부문화가 크게 위축되어 기업들의 기부가 줄어든 상황에서 이번 지원계획은 ‘사랑의 온도달’ 온도 올리기 분위기 조성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고 말했다.

/김진성 기자

“특활비 메모, 받아쓰기 일 뿐”... 최순실 모르쇠

자필메모 국정원 자금관리 정황 “메모는 습관” 혐의 적극 반박

검찰이 최순실(62)씨의 국가정보원 청와대 상납 자금 개입 증거로 제시한 ‘자필 메모’와 관련, 최씨 측이 “이재만의 말을 받아 적은 것일 뿐”이라며 혐의를 적극 반박했다.

최씨 변호인 이경재(69·사법연수원 4기) 변호사는 지난 5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검사 양석조)는 국가정보원으로부터 36억5000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박근혜(66) 전 대통령을 전날 추가 기소했다.

특히 검찰은 이 자금의 사용처에 대한 조사 과정에서 이른바 ‘문고리 3인방’ 안봉근·이재만·정호성 전 비서관에게 지급된 상납금 액수가

최씨의 친필 메모로 기록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최씨는 포스트잇에 ▲J(정호성) 13년 3000만원, 14년 5000만원, 15년 5000만원(합계 1억3000만원) ▲Lee(이재만) ‘/’ (정호성과 같다는 의미에서) ▲An(안봉근) 13년 3000만원, 14년 5000만원, 15년 3000만원(합계 1억 1000만원)이라고 적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 메모를 확보한 검찰은 최씨가 국정원 상납 자금에 깊숙이 관여한 것으로 의심해 소환 조사를 시도했지만, 최씨 측에서 완강히 거부해 무산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이 변호사는 “최씨는 지난 2015년 말경 박 전 대통령 결을

때나 독일로 갈 때 즈음 이재만 전 비서관을 만났다”라며 “당시 최씨는 이전 비서관에게 ‘그동안 수고했는데 퇴직금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어렵다’고 말하며 걱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러자 이전 비서관은 ‘대통령께서 자신들을 적절히 챙겨주고 있다’라고 말했다”라며 “최씨는 이전 비서관이 당시 말하는 내용을 메모해둔 것에 불과하다. 평소 메모하는 습관이 있어서 그 내용을 적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최씨가 이전 비서관 등에게 흘러간 국정원 자금을 관리한 게 아니라, 단순히 이전 비서관이 말하는 내용을 받아 적은 것뿐이라는 항변이다.

이 변호사는 또 “최씨는 메모에 대

해서 특별히 의미를 두고 있지 않았는데, 검찰 발표를 보고 메모에 대한 기억을 되살렸다고 한다”라며 “이전 비서관의 설명을 메모 형식으로 받아 적은 것에 지나지 않는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러면 검찰은 마치 최씨가 청와대 특활비 상납금을 알고, 그 집행에 관여한 것처럼 하고 있다”라며 “최씨와 박 전 대통령을 경제공동체나 이익공동체 또는 동반자 관계로 의혹을 확산시키려는 의도”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최씨는 국정원 특활비에 대해 아는 바 없으며 관여한 사실도 없다”라고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뉴시스

“전주매일신문은
항상 도민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구독·광고문의: 063-288-9700

www.jjmaeil.com